

원목자의 역할과 가치

지 영 현 (시몬) 신부님

강남성모병원 원목실 부실장

병원에서 환자가 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한다. 삶의 일상적인 요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지위와 책임은 중지된다.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기쁨과 성취를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재능과 힘은 심한 손상을 입게 된다. 게다가 사회복귀를 위한 선택권은 상당히 불확실해 진다. 입원환자는 혼자 있다는 소외를 경험한다. 친숙한 이들과 더불어 습관적으로 행하던 일에 대부분을 혼자서 마무리해야 하는 무서운 외로움을 체험하게 된다. 병은 종종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별거승이가 되게 한다. 공포, 죄, 분노, 혼란에 대한 노골적인 감정이 전에 없이 격렬하게 끓어오른다. 억제할 수 없는 호느낌, 고통스런 자기비난, 낙담과 무관심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다. 그런 강렬한 감정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용기를 잃게 하고 당황하게 할 수 있다.

에릭 가셀은 질병과 고통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는 “고통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인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며 그 고통의 원인은 복잡한 사회적이고 심리학적 실재로서의 인간의 완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도

전 속에 있다.”고 하였다.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을 포함하고 있을 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것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고통은 인간의 완전성과 무결성을 위협하고 있는 갖가지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통은 보편적인 동시에 철저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 고통은 개인의 완전성과 무결성을 위협하는 갖가지 일 안에 그 원인이 있다. 개성에 관한 모든 영역이 손상되고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고통은 많은 잠재적인 원천과 영역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이자 독특성이다. 그것 때문에 개인은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원목자가 필요한 것이다.

원목자는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외치는 ‘고통의 소리’를 경청함으로써 환자를 가장 잘 거들게 된다. - 고통을 받는 환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슬퍼하고 호소하고 괴로워하고, 희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목자와의 이러한 만남은 환자들 마음 안에 기원과 운명, 존재와 소멸과 관련 있는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지와 강한 삶에 대한 희망을 불붙게 한다. 그러한 강렬한 상징으로

서 원목자는 환자의 투병에 참여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문제들을 식별하고, 이야기를 듣는다. 인간성의 한계 속에서 원목자는 사람들을 신비와 역설의 순례에 참여시킨다.

극단적인 의존과 분리의 위협에 직면하고 잠재적인 상실과 위협에 둘러싸여 있고 인간적인 한계와 나약함을 인정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은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 울부짖고 있다. 투쟁은 격렬하고 개인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할 때 사람들은 실로 신성한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가장 충만한 희망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 투쟁에 관여

하는 것은 인간존재의 핵심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다.

원목자는 고통을 제거해주기 위해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삶을 위해 고통의 더 깊은 의미를 찾아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투병은 가치 있고 하느님은 환자를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의미는 찾아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서 환자를 안심시켜 준다. 개인의 존재와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통해 원목자는 하느님의 구속적인 사랑이 환자에게는 더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